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강원훈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웅



함평 김광훈



화순 박순철

순천시, 추석연휴 98만여명 다녀가

순천시에는 이번 추석연휴기간 순천만국가정원에 개장 이래 1일 최대 방문객이 몰리는 등 총 98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62.8%가 증가한 수치로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포함) 68만여명을 비롯해 낙안읍성 14만3천여명, 드라마촬영장 9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외에도 천년고찰 송광사와 선암사, 순천자연휴양림 등에도 자연을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가지려는 방문객이 찾는 등, 순천의 모든 관광지에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 9월 29일부터 '정원갈대축제'를 개최하면서 퍼레이드쇼, 미디어아트쇼, 포크페스티벌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가을 낭만과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5일 역대 1일 최대 관람객인 13만 9487명이 방문했다.

연휴기간 다채로운 정원갈대축제 프로그램 운영과 습지관광 후 오후 시간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등 많은 방문객들의 지역 체류로 숙박업소 풀기현상이 발생했고, 오전지구, 연향지구 및 순천만 습지 주변 식당과 국가정원 내 식음시설의 대기 시간이 늘고 식재료가 조기 소진되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약 496억원이 추산됐다.

순천만국가정원 1일 최다 기록 13만9487명 내비게이션 검색·교통량 증가 전국 최상위



이는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남해안 벨트(부산, 통영, 거제, 순천 등) 관광업종별 지난 2년간(2014~2016년) 통신타데이터 및 카드 매출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남해안 거점 지역에서 2위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순천시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귀향객 및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1개월 전부터 SNS, 파워블로그 등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관광지별 특색 있는 이벤트 개최 및 다채로운 체험

한 결과 순천만국가정원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관광지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여수해상케이블카, 대천해수욕장, 강원랜드, 남이섬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보다 많은 이들이 검색하고 찾은 것이다.

또한 순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추석 다음날 교통량에서도 23000여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배 증가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긴 연휴와 맞물려 많은 장거리 여행객들이 나들이를 위해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가 마련돼 있는 순천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관광트렌드가 가족단위 관광 및 명절 등 연휴를 이용해 여행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광객 바이 퍼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팔마시민예술제, 20일부터 22일까지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11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순천만갈대축제가 연이어 개최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연과 생태에 문화와 예술을 가미한 콘텐츠로 365일 즐거운 도시로 올해 관람객 9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

순천시는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허형만 양재원, 하태일 3명을 올해 시민의 상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문화·관광·홍보 부문 허형만 씨(남, 71세), 환경 부문 양재원 씨(남, 58세), 사회복지 부문 하태일 씨(남, 69세)를 최종 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3일(제36회 팔마 시민예술제) 오후 6시 시청 앞 주무대에서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할 계획이다.

순천 시민의 상은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관광·홍보, 교육·과학·체육, 환경 등 6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고 있으며, 95년 통합 이후 올해까지 수상자는 30명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만들어 나간다

정현복 시장,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서 비전 선포

광양시는 11일 오전 10시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제23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을 갖고 '청년 희망도시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시정의 역량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민과 정현복 광양시장 정인화 국회의원 송재천 광양시의회의장, 시의원, 지역 유관 기관 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자매도시인 하동군 김대형 부군수와 재경광양시향우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한 경향각지의 향우 회원과 우리시 홍보대사도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광양시립예술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과 정현복 광양시장의 기념사로 진행됐다.

이어, 청년단체와 함께하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청년들의 니즈와 의견이 담긴 '청년희망, 행복광양'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현복 광양시장은 기념사에서 "제23회 광양시민의 날을 맞이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새 희망을 설계하고자 한다"며, "하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어르신이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희망이 없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우리 시의 미래도 밝아진다"며, "하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 이어서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광양'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제23회 광양시민의 날' 부대행사로 11일부터 13일까지 제25회 분재전시가 시청 내 잔디밭에서 열리며, 11일에는 '광양함 공개 행사'가 중앙일보부두에서, 10월 13일에는 '제9회 대학국악제'가 저녁 7시 30분 백운아트홀에서, 15일에는 '제9회 전국시도 경창대회'가 삼록회관에서 개최되는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광양=김종권 기자

나주시, 가축재해보험료 지방비 확대 지원

축사 화재·자연재해·질병 피해로 인한 농가 시름 덜어

나주시는 축사 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지방비를 2회 추경에 확보, 재해보험 가입 전체 농가에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축재해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 부담 50%이지만 나주시는 농가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자부담분 25%를 지방비(도비 10%, 시비 15%)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도비 지원분 부족으로 선착순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비가 소진된 이후, 국비를 지원 받은 가입자들이 지방비 지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보조금 지원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나주시에 따르면 2017년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2월 말까지 총 340농가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중 지방비 지원 농가는 167농기뿐이고, 나머지 173농가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지방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됐다.

이에 나주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2회 추경에 도비지원분 51,900,000원과 시비지원분 77,850,000원인 129,750,000원을 확보해 지방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및 신뢰도 회복에 나섰다.

머지 173농가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지방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됐다.

이에 나주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2회 추경에 도비지원분 51,900,000원과 시비지원분 77,850,000원인 129,750,000원을 확보해 지방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및 신뢰도 회복에 나섰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군보건소, 쾌적·편리하게 '새 단장'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등 청사환경 개선

화순군보건소가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로 새 단장됐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7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공직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화순군은 4억 8천 만원을 들여 누수 문제 해결,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교체, 석면이 함유된 천정텍스 교체,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보강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민원실과 재활치료실간 통로

를 개설해 그동안 실의를 통해 다시 민원실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민원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1, 2층 장애인 화장실에 자동문을 설치해 장애인전동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곳에 민원실과 연계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토록 했다.

모자보건실 내부시설도 정비하고 수유실에 자동문을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31대를 교체해 쾌적하고 따뜻한 청사환경을 만들었으며 전기요금도 절감하게 됐다.

정승희 보건소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노약자, 장애인, 일반민원인 등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 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 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 ~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